

지역 소식통

김제시 에너지위원회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에너지위원회 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김희옥 위원장(부시장)이 주재하고 김제시의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부 부장,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관계기관 부서 공무원 등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 에너지 정책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에너지위원회는 2024년 김제시 에너지정책 주요성과와 2025년 핵심사업 추진 계획이 보고됐으며, 시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했다.

올해 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설치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등 여러사업들을 추진해 시민들의 에너지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자립도시로의 기반을 다졌다.

오는 2025년에는 △수소 사업, △북김제변전소 건설사업, △전북특별법 특례 대응 등의 특수시책을 추진해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탄소중립,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에 대응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소방서, 가을 환절기 심뇌혈관 질환 주의 당부

김제소방서는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를 맞아 심뇌혈관 질환 발생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심장 질환의 경우 갑작스러운 가슴통증과 식은 땀, 호흡 곤란, 오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뇌혈관 질환은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얼굴 및 팔다리가 마비 증상과 두통, 어지럼증 등이 발생한다.

위의 증상들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호전될 수 있으나 점진 증상을 수 있어 지체없이 병원에 방문하거나 119에 신고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 선정

김제시, 전지훈련센터 조성·테니스장 시설 개선 사업... 도비 예산 27억6000만원 확보

김제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에서 김제시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과 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 총 2개의 사업이 선정돼 도비 예산 27억6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시설 주변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공모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7월 공모를 신청 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방문 건의 및 사업제안 설명 등을 철저히 준비해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김제시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도비 18.6억원, 시비 31.4억원을 투입해 50여명 수용가능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 등 마련할 예정이다.

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도비 9억원, 시비 21억원을 들여 7면으로 확장하고 30여년 지나 노후화된 라켓룸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보수할 계획이다.

시는 해마다 국도비를 확보해 공공



김제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에서 김제시 전지훈련센터 조성사업과 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 총 2개의 사업이 선정돼 도비 예산 27억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체육시설 신규 건립과 개보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는 총 269억의 예산을 투입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지평선벽골제다목적체육관, 죽산파크골프장, 백구·용지·봉남 게이이트볼장 등 총 6개소의 체육시설을 새롭게 마련중에 있다.

김제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숙원사업이었던 스포츠 인프라 구축 사업들

이 순조롭게 진행돼 큰 보람을 느끼며, 이번 시설들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체감 높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조성하겠다"며 "특히, 전지훈련센터가 조성되면 공격적으로 스포츠마케팅과 연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국 최고 봉동생강으로 맛나게 김장하자”

봉동생강골시장 '생강&김장축제' 15일 개최



15일 오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봉동생강골시장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축제는 김장담기 체험과 다채로운 참여 행사가 준비됐다.

완주군 봉동생강골시장에서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생강&김장축제'를 개최한다.

오는 15일 오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봉동생강골시장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축제는 김장담기 체험과 다채로운

참여 행사가 준비됐다. 체험행사 부스에서는 봉동에서 생산한 생강이 들어간 양념을 활용해 절임 배추로 직접 김치를 담는 김장 체험이 이뤄진다.

봉동생강은 그 자체로 명사로 일컬

어질 만큼 명성이 높다. 향이 진하고, 특유의 알싸한 맛과 단맛이 일품이다.

또한 부대행사로 △생강 맛있게 먹기 대회 △주민 노래 및 장기자랑 △김장재료 골든벨 등 다채로운 행사도 즐길 수 있다.

특히 여러 농가가 참여한 봉동특산물 생강과 김치와 수육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도 있다.

이현구 봉동생강골시장 상인회장은 "완주 명물 생강과 지역 농산물을 통한 김장 행사로 지역 농가소득 증대와 김장비용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봉동생강골시장을 널리 알려 지역 명품 시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전국 최고의 봉동생강을 활용해 버무린 김치의 맛을 기대해 달라"며 "이번 행사가 우리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전통 음식 문화를 지켜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봉동 생강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성산지구 도시재생 청소년 캠프' 성료

김제 중앙중학교 학생 대상, 성과 공유회 진행... 우수 작품 시상 등

김제시는 김제중앙중학교 학생들 5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청소년도시재생캠프 성과 공유회를 12일 오후 1시 김제농생명 마이스터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도시재생캠프는 자유학기제 수업과 연계해 청소년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산지구 도시재생 사업구역을 답사해 지역의 물적, 인적자원을 발견하는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 프로그램으로 김제중앙중학교 1학년 2개 반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9회차 진행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 기간 동안 도시재생 감의를 청취하고 조를 이루어 성산지구 도시재생 사업지의 자원인 성산공원, 홍성정, 김제관아, 향교, 전통시장, 도시재생 사업지 등을 답사하고 발견하는 과정에 참여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성산지구 도시재생 사업지의 장소와 인물들을 인터뷰와 연극, 뉴스, 브이로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직접 기획, 촬영



영하고 편집한 영상물들을 선보였다.

행사는 개회식 및 내빈소개로 시작해 활동사진 영상 상영, 조별 소개와 영상 발표 순으로 진행됐으며, 성과공유회의 마지막에는 최우수상, 우수상 등 우수 작품을 시상해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노력을 격려했다.

특히 인기상, 베스트 커플상 등 청소년들의 직접 투표로 수상자가 선정되는 과정도 있어 성과공유회에 더 재미를 더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에서 난(蘭)산업 박람회 열린다

16-17일 우석대 실내체육관서

완주군이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한국 자생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난산업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4 전북특별자치도 난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사)전북특자치도난산업연합회가 주최하는 난산업 박람회는 한국 자생란의 정보 교류의 장으로, 한국 춘란 500여 점 등 다양한 출품작을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

박람회 출품작은 오는 15일까지 접수 및 사전심사를 마칠 예정으로, 전시 및 우수 작품 시상식은 16일 오후 2시 개막식과 함께 진행된다.



자생란 전시뿐만 아니라 난 경매 및 관람객들을 위한 분갈이 체험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 특산물 판매 등 다양한 체험과 즐길거리도 준비됐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기부식품 나눔행사 성료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푸드뱅크 사업의 일환으로 12일 진봉농협 회의실에서 기부식품 나눔 행사인 '따뜻하고 맛있는 지평선 나눔 공간을 열어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먹거리 확보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김제시기초푸드뱅크(관장 권영세)는 김제노인복지센터(센터장 박남주), 성암노인복지센터(센터장 이춘자)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용자에게

식품과 물품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돕고자 기부식품 나눔 협약식을 체결했다.

진봉면행정복지센터와 김제노인복지센터, 성암노인복지센터가 협력해 진행된 이번 기부식품 나눔 행사는 시외 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진봉, 죽산, 부량, 성덕, 광활면의 취약계층 400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부식품(두유, 햇반, 고추장, 음료 등) 총 15종이 담긴 식품·물품 꾸러미를 제공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